



교합평면 부조화와 심한 마모가 있는 환자에서의 완전구강회복 증례

박민옥*, 배은경, 이근우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교합평면이란 이론적으로 절치의 절단면과 구치 교합면의 교두정이 접촉하는 가상면이라 할 수 있다. 교합평면의 결정에는 미소선, 발음, 스피 만곡, 윗손 만곡 등이 관여하지만 모든 사람에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교합평면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 발육 장애, 선천적 기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교합의 평형이 무너져서 보철적 수복시에 이를 새로 설정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합 평면을 새로이 설정해 주려 하는 경우 고경의 변화없이 진행될 때와 변화를 줄 때로 구분해 볼수 있다. 보통 고경을 증가시켜 수복하려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한다. 1)두개하악 장애를 완화, 2)두개하악 과절부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3)심하게 마모된 경우 상실된 교합고경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4)안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그러나 위의 이유는 정확한 진찰을 통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시에 타당하며 이에 맞추어 수립된 치료계획을 통해 치료는 진행된다.

교합거상을 하려하는 경우에 이 방법에는 점진적 거상법과 일시적 거상법이 있는데 점진적 거상법은 splint를 이용하여 높이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고 일시적 거상법은 적절한 수직고경이라 판단한 위치로 한번에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일시적 거상법은 교합기에 부착된 진단모형에서 진단 wax-up을 하여 임시 수복물을 만드는 것으로 행해진다. 이 방법은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때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환자는 전반적인 심한 교합면의 교모로 치아 신경이 노출될 것 같고 하악 구치부가 없어서 보철물을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하악의 양측 구치부가 결손된 상태였으며 하악전치부의 심한 마모와 상악 전치 보철물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진단 모형 mounting후에 수직악간 관계를 검사한뒤 수직고경을 높여 진단 wax-up을 시행하였고 임시 수복물 장착하는 일시적 거상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6개월 장착하여 경과를 살펴 보고 환자가 적응함을 관찰한 뒤에 최종보철물을 제작하였다.